공연 사러 오세요

박꽃비 단국대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 석사과정

스태프의 눈으로 들여다본 서울아트마켓

공연예술 작품을 사고파는 예술 견본시(見本市)인 서울아트마켓(PAMS)이 벌써 세번째 해를 맞았다. 지난 10월 9일부터 서울아트마켓이 열린 엿새 동안 공연단체들은 자신들의 작품과 열정을 스스로 소개하고, 공연장 관계자와 기획자들은 공연단체를 직접 살펴보며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했다. 아직까지 '유통'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한국 공연예술계에서 국내의 유통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서울아트마켓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서울아트마켓 스태프의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아트마켓 인 서울

서울아트마켓이 열리는 첫날. 서소문의 아침은 좋은 가을 날씨를 맞이하고 있었다. 어딘가로부터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날씨였다. 생각보다 꽤 일찍부터 외국 손님들이 평소와는 다른 자신들의 아침에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행사장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배회하고 있었고, 나 또한 학교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온 자리여서인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이 나 있었다.

서울아트마켓이 열리는 것이 세번째. 해가 갈수록 해외 손님들이 늘어나고 점점 더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홍보에 걸맞게 입구에서 나처럼 서성이고 있는 손님들은 대체로 외국인들이다. 중앙일보 건물 1층에 위치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는 '아름'과 '누리'라는 두 개의 갤러리를 갖춘 아담하고 깔끔한 공간이었다. 갤러리 '아름'에서는 부스 전시가, '누리'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단체들의 프레젠테이션, 회의 등이 개최된다고 한다. 갤러리 '누리'에 들어가 보니, 큼지막한 벽걸이 TV들이 양 옆의 유리설치대에 위치해 있었고 중앙부에는 많은 의자들이 앞쪽 단상을 향해 놓여 있었다. 어느새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첫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을 기다리는 국내외 손님들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펼쳐지리라는 기대가 들었다.

행사 초반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IETM(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서울회의가 열렸다. 회의 주제는 '지금 유럽·아시아 예술경영은?', '공연예술 축제 매니지먼트', '공연예술 공간 매니지먼트', '공연예술의 이동성과 공동제작', '예술가·예술단체 매니지먼트', '문화도시와 공연예술'이었는데, 이를 주최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취지와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 IETM 회의 주제가 참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까 했는데,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국내외 분들이 이 회의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의 회의는 공연예술 경영이나 국내외 유

통 현황, 앞으로의 국제적인 공연예술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각국에서 온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자국의 공연예술 유통현황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꽤 효율적이고, 또 흥미로운 일이었다. 한국 사람들이든 외국 손님들이든 모두 진지하게 프로그램을 들었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 토론이 이루어질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러한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평을 하고 싶지만, 회의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좀더 되었다면 더 많은 국내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함께 들었다.

경계를 허물자, 서로 통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부스전시가 열리는 갤러리 '아름'에서 육체와 영혼의 허기를 채울 런치타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서울아트마켓의 부스전시장은 여느 전시장이나 박람회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다. 온통 둥근 테이블에 의자들이 놓여 있고, 유리로 각자의 자리들을 구분해놓았을 뿐이다. 외국 손님들도 이 분위기에 놀라는 것을 보니, 그들에게도 낯선 모습인가보다. 이 낯설지만 신선한 전시장에서의 런치타임은 이야깃거리를 맛난 애피타이저 삼아 나눌 수 있어 다소 수다스런 시간이 되기도 했다.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매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참여인원에 비해 행사공간이 비교적 아담했던 이곳에서 앉을 곳이라고는 부스테이블뿐이었는데, 이 기회를 백분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국내의 공연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었다. 저마다 양손에 접시를 들고서 관심이 가는 부스에 찾아가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즐기는 흥겨운 분위기는 생소한 풍경이었으나, 왠지 낯설고 딱딱한 행사장이 아닌 친근한 이웃집에 놀러온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가벼운 점심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면 갤러리 '누리'에선 다시 한 번 당일 부스전시를 할 관계자들 몇몇이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때는 특히 외국 손님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아마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국내공연 소개가 곧 한국의 매력을 대변해주는, 한국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며, 바로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부스전시에서 자신들이 찾는 장르의 작품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부스전시에서 20개의 단체들은 정말 열심히 자신들의 작품들을 홍보하고 유치하려 애쓰고 있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서울아트마켓 이래 네트워크가 가장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부스 형태의 변화인 것 같았다. 내가 처음 보고 놀랐던 바로 그 유리형 부스는 기존의 네모진 부스보다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웠다. 유리로 세 개의 부스(테이블)를 구분해 주었는데, 개방형이다보니 협소한 공간을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든지 한 번 이상은 한 단체를 지나가게 되어 오가면서 각 단체가 홍보하는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읽어보게 되어 있었다. 더욱이 원형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써 소회의장을 연상시키는 부스전시장은 화기애애하고 열기를 띤 공간이 되었다.

아트마켓 행사의 담당자들이 말해주길 예년 행사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박스형 부스, 그러니까 박람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보니 북적이는 부스를 통해서 외국 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작품과 장르가 어떤 것인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북적이는 부스들이 있는가 하면 공연관계자들의 발길이 뜸한 부스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전시를 하는 쪽이나 주최한 쪽이나 서로에게 딱한 노릇이었겠다 싶다. 더욱이 이전 행사 때는 한 단체가 한 부스를 행사 기간 내내 전담하여 전시를 하였다니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이전의 형식을 벗고 부스 형태를 확 바꾸고 나니 한결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참 기분이 좋았고, 이젠 많은 단체들에게 고루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도 열심히 준비해 온 부스단체들과 약간 미흡하게 준비한 부스단체들은 얼핏 보기에도 차이가 났다. 준비를 잘 해온 단체들은 자신들의 공연작품 하이라이트를 모아 동영상 CD로 복사해 노트북으로 반복 상영하거나, 이제까지 공연해온 팸플릿들을 테이블 한가득 전시해 놓거나, 또는 아예 유리부스에 마네킹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간으로 꾸며 시선을 끌기도 하였다. 각 공연예술 단체들이 부스에 나와 전시하는 방법들도 가지가지여서 보기에 좋았지만, 미처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단체들에게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이전에 공연예술단체들이 얼마나 부스전시에 서툴렀던가를 생각해보면 크게 발전한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이 행사는 작품 만들기에만 집중하던 단체들에게도 큰 공부가 되는 자리이리라.

쇼쇼쇼! 쇼를 하라!

부스전시가 끝나고 나면 참관자들은 부스전시장인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앞에서 주최측이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대학로의 쇼케이스 공연장으로 향한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울의 깊어져가는 가을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느끼며 여유롭게 공연장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 외국 손님들이 더더욱 이러한 서울의 가을 분위기를 즐기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는 긴장된 현장에서 다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니,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겠는가. 숙제를 풀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분위기랄까?

대학로의 열기는 이러한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대학로의 복잡함과 분주함, 축제 같은 분위기는 외국 손님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나흘간 아르코 예술극장과 사다

리 아트센터에서는 각각 20분씩 PAMS Choice(매년 서울아트마켓에서 선정한 장르별 공연예술작품) 선정작들의 공연 하이라이트만을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펼쳐졌다. 훌륭한 작품의 하이라이트만 선별해 짧고 굵게 공연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쇼케이스는 처음 공연을 접하는 관객에게나 외국 손님들에게 좋은 점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각 작품이 공연되기 전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은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작품당 20분'이라는 시간이 때로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 나중에 여기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꼭 한번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의지마저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장소가 인원에 비해 너무 협소하다 보니 아무리 짧게 공연한다고 하여도 딱딱한 자세로 공연을 관람해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했다. 이어지는 호암아트홀과 국립극장에서의 전막 쇼케이스가 이러한 갈증을 한층 해소시켜 주기는 했지만 말이다.

다른 참관자들도 나처럼 쇼케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지, 아침부터 행사에 참석하느라 피곤했을 텐데도 부스전시장에서 먼 쇼케이스 공연장까지 자원 활동가들의 안내에 끝까지 잘 따라주었다.

팸스+팸시안=열정

6일간의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뽑자면 인디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자원 활동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었다. 서울아트마켓의 표기명인 PAMS를 따 'PAMSIAN'(팸시안)이라 불리는 자원 활동가들은 거의 20대로 이루어져 있어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은 행사 주최측 관계자가 아닌 자원 활동가들이었다. 특히 외국 손님들은 국내외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부스전시장과 쇼케이스 현장에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자원 활동가들의 모습에 감탄했고,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이미지가 자원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웃는 모습과 친절한 모습이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어디를 가든지 자원 활동가가 있어서 행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발생하거나 일이 있을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행사에 찾아온 손님들은 보다 편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스전시장과 쇼케이스 공연장 사이의 거리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팸시안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열정적인 팸시안이 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아트마켓, '공연예술 유통'의 가능성을 열다

성경의 첫 부분에는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자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비로소 인간을 만듦으로서 세상이 완성된다는 내용이다. 서울아트마켓이 6일간 열리면서 하루하루 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나의 모습이 다소 발전되어 있다는 기분도 들었다. 행사는 런치미팅과 부스전시, 그리고 대학로의 쇼케이스 등의 고정된 일정으로 치러졌지만 매일 다른 내용들로 운영되었고 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의 공연예술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매일 다른 20개의 부스전시, 20분짜리 쇼케이스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한 자리에서 좋은 공연들의 하이라이트를, 다양한 장르를 지켜보는 재미 또한 참관자에게 꽤 쏠쏠한 재미를 선사해주었다.

사실상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나 경영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를 내실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키기에도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의 공연예술 콘텐츠는 한정되어 있고, 이를 활성화시킬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아트마켓'처럼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거두어질지 기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쇼케이스와 더불어 매일 다른 부스가 전시되었으니 외국 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들의 선택권도 좀더 넓어졌을 것이다. 점심을 먹으며 혹은 칵테일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운영 또한 나흘간은 부스전시에 중점적으로, 나머지 이틀은 IETM회의에 중점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부스전시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공연예술 단체들도 회의를 통하여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행사는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

이제는 넌버벌퍼포먼스 장르로만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무용도, 정감과 재치가 넘치는 우리 연극이나 뮤지컬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서울아트마켓은 이러한 바람에 촉매 역할을 해주리라는 확신이 든다.

마지막 행사 프로그램이었던 클로징 파티장을 나오면서 늦은 밤의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행사 첫 날보다는 약간 더 쌀쌀해진 바람이 내 코끝을 스쳐갔지만, 그때 그 기분 좋았던 날씨처럼 나의 서울아트마켓 마지막 여정의 날씨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었다.

글쓴이 **박꽃비**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중이다. 2007서울아트마켓에서 자원 활동가(PAMSIAN) 운영 관리를 맡아 일했으며, 앞으로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열정 있는 예술경영인이 되는 것이 비전이다.